

박영란 장편소설 『서울 아이』

함께 읽기 수업구성안



책 소개

형제는 벌써 삼 년째 들어서만 생활하고 있다. 식당 배달 알바를 하며 비밀을 품은 고양이 ‘버드’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는 열여덟 살 진우는 삼 년 전 학교 간 사이에 집을 나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종종 집을 비운다. 하루나 이틀, 아버지가 있을 만한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둘러보고 오던 진우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아버지를 찾으러 나간다. 그런데 이번 외출은 조금 길어지고, 혼자 남은 동생은 돌아오지 않는 형을 기다리며 여름 방학을 보낸다. 형이 찾는 이가 ‘아이언맨’이라 믿는, 동생의 이름은 ‘희망’이다.

부모도, 이른 홀로서기도 선택한 적 없는 형제의 일상을 곧게, 또 담담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아이들의 불안하고 때로는 천진한 심리를 가감 없이 그려낸다. 소설 속 무책임한 어른들의 뒷모습에서 독자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에 관해 생각하게 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어떤 부모의 아이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이 아닐까? 어느새 독자들은 두 아이 곁에 나란히 서서 기다림의 끝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21년 아동 학대 사례는 약 3만 7천 건, 그중 방임을 포함한 학대는 약 5천 건으로 피해 아동의 7명 중 1명은 방임을 경험한다. 끔찍한 아동 유기·방임 사건이 보도된 뒤로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의식은 높아졌지만, 방임은 여전히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학대 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서울 아이』 속 이웃들은 다르다. 적극적인 신고 정신을 발휘하거나 직접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을 돕지는 않지만, 도시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에게 때때로 말을 걸어 안위를 확인하거나 무심히 냉장고를 채워 주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년들을 지킨다.

서로를 향한 이런 느슨한 연대는 단순히 허름한 동네에 이웃해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동류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상상으로나마 ‘그럴듯하게 구축해 둔 인생’이 아닌 ‘진짜 인생’,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찾기 시작해야만 보이는 그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의 자연스레 연대로 발현되는 것이다.

외면당하는 게 일상인 소년이 박대당하는 게 일상인 길고양이와 눈을 맞출 수 있었던 건, 이런 느슨한 공동체 환대 덕분이다.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어슬렁거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는 광장에서 조금 일찍 마주한 인생의 비밀. 아이를 어른으로 만드는 도시에서 훌쩍 커버린 열 살의 여름 방학 이야기가 펼쳐진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삶. 그 모두를 품으로 끌어안지는 못해도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삶 그 자체를 환대하는 작가의 끈고도 따스한 시선. 그렇게 『서울 아이』는 비정한 거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슴 저릿한 ‘희망’의 가능성을 건넨다.

(출판사 책 소개 중)

학습 목표

- 희망이와 희망이의 형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어떻게 성장하여 가는지 살피고, ‘성장’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 희망이가 이웃들과 맺는 관계를 들여다보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희망’이 우리의 삶에서 갖는 의의와 가치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차시별 활동 계획

| 차시 | 단계 | 활동 내용 | 비고 |
|-----|-------|----------------------------------------------------------------------------------------------------------------------------------------------------------|-------------------------|
| 1 | 읽기 전 | [활동 1] 『서울 아이』의 표지(제목, 소개글, 그림)를 참고하여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기 [활동 2]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과 그때의 심경을 함께 나누어 보기 [활동 3]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지 토의해 보기 | 모듬 활동 모듬 활동 |
| 2 | 읽기 중 | [활동 1] 희망이네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소설 속에서 찾아서 정리해 보기 [활동 2] 희망이의 이웃들에 대한 정보를 소설 속에서 찾아서 정리해 보기 / 희망이가 이들과 맺는 관계를 들여다보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 | 모듬 활동 모듬 활동 |
| 3 | 읽기 중 | [활동 3] 희망이와 귀차니 아줌마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살펴 보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성찰해 보기 [활동 4] 희망이네 가족의 사연을 기사문으로 작성해 보기 | 모듬 활동 |
| 4 | 읽기 중 | [활동 5] 희망이에게 ‘아이언맨’은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에 대해 토의해 보기 [활동 6] 희망이와 희망이 형에게 ‘개다리춤’은 어떤 의미를 가진 행위인지에 대해 토의해 보기 [활동 7] 소설의 결말에서 희망이와 희망이 형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토의해 보기 | 모듬 활동 모듬 활동 모듬 활동 |
| 5 | 읽기 후 | [활동 1] 형이 희망이를 떠나 있던 시간의 ‘아이언맨 추적기’를 상상하여 작성해 보기 [활동 2] 열다섯 살이 된 희망이의 모습 상상하여 써 보기 | |
| 6~8 | 심화 활동 | 영화 『중앙역』 감상하기 | 모듬 활동 |

1차시 - 읽기 전 활동

- 『서울 아이』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내용을 추측하여 써 봅시다.
(표지 그림, 제목 ‘서울 아이’, 부제목 ‘기다리는 일의 끝에 누군가’, 뒷면의 소개글 ‘아이를 어른으로 만드는 도시에서 매일을 기다리는 따뜻하고 아픈 십 대의 성장기’ 등을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하여 줄거리를 작성해 보기)

-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이 있나요? 아래 시의 인용 부분을 참조하여 그때의 경험과 심경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중에서

-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 봅시다.

2차시 - 읽기 중 활동

1. 희망이네 가족들에 관한 정보(나이, 하는 일, 가지고 있는 사연, 성격 등)를 소설 속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

| 희망이네 가족 | 나이, 하는 일, 가지고 있는 사연, 성격 등 |
|---------|---------------------------|
| 희망이 | |
| 희망이 형 | |
| 희망이 아빠 | |
| 희망이 엄마 | |
| 희망이 이모 | |

2. 희망이의 이웃들에 대한 정보(나이, 하는 일, 가지고 있는 사연, 성격 등)를 소설 속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 희망이가 이들과 맺는 관계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희망이의 이웃 | 나이, 하는 일, 가지고 있는 사연, 성격, 희망이를 위해 해준 일들 등 |
|----------|------------------------------------------|
| 귀차니 아줌마 | |
| 옆방 누나 | |
| 맥도날드 누나 | |
| 주인집 할아버지 | |
| 설렁탕집 할머니 | |

- 1)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 2)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갖추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3차시 - 읽기 중 활동

3. 아래 인용 부분을 읽고, ‘한 무리의 사람들’과 ‘형들 셋’이 보이는 행동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계단 위 다리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마디씩 했다.
 쫓쫓,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귀차니 아줌마와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가장 자주 듣는 말이기도 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혀를 차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응한다.

썩! 썩! 저리 가!
 귀차니 아줌마가 무섭게 쫓아버렸다. 귀차니 아줌마는 덩치가 코끼리 같아서 겁을 주면 대부분 먹힌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은 별꼴 다 보겠다는 듯이 눈을 흘기며 우르르 몰려갔다.

(64-65쪽)

야, 이것들 바라!
 진짜 신기하네!
 야, 좀 찍어라!
 휴대폰을 꺼내 들고 우리 주위를 빙 둘러쌌다. 이상한 관심에 나는 겁을 먹었다. 아줌마 옆에 바짝 붙었다. 형들 셋이 휴대폰으로 아줌마와 나와 아기를 막 찍어댔다.
 아, 씨발.
 아줌마가 화를 냈다.
 와! 말도 한다.
 셋이 엄청난 것을 봤다는 듯이 떠들어 댔다. 완전 개차반들이었다. 우리 형 친구들 대부분은 거칠지만 그런 개차반 짓은 안 한다. 더구나 귀차니 아줌마나 광장 사람들을 보고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
 이 개새끼들 저리 가!
 아줌마가 소리 질렀다.
 와, 욕도 한다!
 이번엔 셋이 한꺼번에 와하하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참견은 하지 않았다.

셋 가운데 한 형이 아기가 들고 있는 딸기셰이크 컵을 쳤다. 컵이 땅에 떨어지면서 붉은 셰이크가 사방으로 튀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야, 울 줄도 안다!
 형들이 우는 아기한테 휴대폰을 바짝 들이대고 사진을 찍었다.
 개새끼들!
 갑자기 아줌마가 가까이 있는 두 명의 멍살을 잡았다가 확 밀쳤다. 뭔가 엄청난 순간이었다. 두 명은 아이언맨한테 당한 악당 조무래기들처럼 나가떨어졌다. 그 통에 두 명의 휴대폰은 더 멀리 날아가 떨어졌다.
 아줌마가 성큼성큼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두 개를 주위 차들이 왕왕거리는 차도 한가운데를 향해 던졌다. 버스가 휴대폰 위를 지나갔다. 빠직. 나는 그렇게 들었다.

(81-82쪽)

3차시 - 읽기 중 활동

4. 소설 전편을 읽고 나서, 희망이네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과거 가족의 삶은 어떠했고, 가족이 해체된 까닭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희망이와 희망이 형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기사문의 형식으로 써 봅시다.

기사 제목 :본문 :

신문 기사 예시 (다음 장)

3차시 - 읽기 중 활동

(신문 기사 예시)

전국 방방곡곡 ‘댕댕이 산타’가 생겼으면

시사인 875호, 춘천·장일호기자 2024.06.28

6년 전 여름이었다. 유기견 보호소 내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개 수십 마리가 보였다.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극심한 무더위로 늘어진 탓이었다. 자원활동을 나간 이여름씨(42)는 그중 털이 유난히 긴 강아지 한 마리에게 눈을 뚫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떠올랐다. “제가 모두를 구할 수 없지만 한 마리 정도는 입양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진도 믹스견 ‘모모’가 그해 여름 이씨 집으로 왔다. 모모는 이씨에게 인간의 무릎 아래에도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 모모의 눈으로 본 세상이 새로 열렸다.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2년 전 가족이 있는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왔을 때, 이씨를 가장 괴롭힌 것은 이른바 ‘마당 개’였다. 모모와 산책하는 동안 50cm 남짓 짧은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2023년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며 마당 개에게도 최소한 2m의 목줄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글자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마당 개를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그럼 계속 제 마음이 불편할 거잖아요. 저 마음 편하자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사비를 털고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도움을 받아 마당 개 환경개선 작업에 나섰다. 견주를 만날 수 없을 때는 물품과 함께 편지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선생님 댁 강아지를 보았어요. 정말 착하고 예뻐요. 그런데 목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긴 줄을 선물할게요. 긴 줄을 해주면 강아지가 더 행복해져요. 꼭 교체해주세요.’ 이름을 밝혀야 할까 망설이다가 익명을 선택했다. 발신자 이름은 ‘댕댕이 산타’로 했다. “제가 하는 일이 마당 개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를 바랐어요.”

드물게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다’는 분을 만나면 보람도 느낀다. 그러나 여전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날이 더 많다. ‘네가 개에 대해 뭘 얼마나 아느냐’ ‘지금 이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 참견하지 마라’ 같은 말을 마주하면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싶었다. 이씨는 자신의 말에 권위를 실기 위해 민간 자격증인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면 좀 나을까 싶어 서울에서 함께 활동하던 환경운동 모임(‘맨땅에 초로록’)에 SOS도 요청했다.

그 덕분에 2023년 본격적으로 춘천 지역 마당 개를 돌보는 모임인 ‘댕댕이 산타 클럽’이 시작됐다. 목줄을 바꿔주고, 말라붙은 그릇을 씻어주고, 그늘막을 쳐주고, 구충약을 먹이고, 털을 골라주고, 견주가 허락하는 경우 산책도 시켰다. 개가 문자 그대로 ‘웃는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 모임에도, 그다음 모임에도 나왔다. 신뢰가 쌓이면서 이씨에게 마당 개 입양을 부탁하는 견주도 생겼다. 이씨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다. 댕댕이 산타 클럽을 통해 “한 마리”를 위한 일이 앞서야 ‘모든 개’를 위한 일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겨우 배웠을 뿐이다.

4차시 - 읽기 중 활동

5. 희망이는 왜 아빠가 아이언맨을 찾으러 갔다고 했을까요? 희망이의 형은 왜 ‘아이언맨’을 찾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두 소년에게 ‘아이언맨’은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6. 소설 속에는 희망이가 여러 차례 개다리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희망이가 개다리춤을 추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특히 다음 장면에서 희망이와 희망이의 형에게 개다리춤은 어떤 의미를 갖는 행위였는지 토의해 봅시다.

야, 취 봐.

형이 개다리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 나는 형이 갑자기 왜 개다리춤을 취 대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멍청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너도 이리 와. 이거 재미있다.

나는 형 혼자 춤추는 게 창피할까 봐 마지못해 바닥으로 내려가 흥내를 냈다. 개다리춤은 본래 온몸에서 힘을 빼고 흐느적거리며 취야 하는데, 나는 한참을 뺏뺏하게 흥내나 내다가 형이 개다리춤을 추는 이유를 갑자기 깨달았다.

언젠가 형이 그랬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개다리춤을 취라. 그러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고, 그러면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틈이 생기는 거다.

바로 그거였다. 그래서 형이 개다리춤을 추는 거였다.

나는 형을 따라 온몸을 흔들었다. 그 통에 버드까지 덩달아 침대 아래로 뛰어내려 와 놀랐다고 아웅거렸다.

형이 먼저 몸에서 힘을 빼고 축 늘어진 자세를 잡았다.

나도 형 보란 듯이 자세를 잡고 팔다리를 지그재그로 흔들었다. 형과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들처럼 입까지 헤벌리고 개다리춤을 취 댔다. 어차피 버드 말고 볼 사람도 없는 방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었다.

음악도 없이 춤을 추고 있자니 형과 나와 버드가 밤하늘 높이 떠오른 별자리가 된 기분이 들었다. 어두운 창공 높이서 내려다보니 그 넓은 광장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

광장뿐 아니라 우리가 살던 신도시와 아버지가 있을지 모를 어느 먼 역과 엄마가 살고 있을 낯선 동네까지 다 보였다. 높이 올라갈수록 모든 것이 점점 작아졌다. 마침내 지구가 한눈에 들어왔다. 생각보다 아름다웠다.

아, 제기랄.

형이 한마디 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무척 보고 싶어졌다. 형과 나와 버드는 창공에서 내려와 서울역을 한 바퀴 돌고 우리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형이 춘 개다리춤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막혔다. 내가 지금까지 본 개다리춤 중에서 그때 형이 춘 개다리춤만큼 근사한 춤을 본 적이 없다. 개다리춤이 가장 근사해 보일 때는 배꼽이 빠질 만큼 웃기게 출 때다. 한마디로 바보 같을 때다. 형과 나는 누가 더 바보 같은지 시합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다리를 벌리고 서서 팔다리를 지그재그로 흔들었다.

형이 외쳤다.

이제 다시는 거기 안 간다. 알겠냐?

알겠다.

이제부터 거기 가자고 조르면 혼난다. 알겠냐?

알겠다.


그날 이후 우리는 우리가 살던 신도시에 두 번 다시 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우리가 행복했던 신도시가 아니라 떠올리기만 해도 겁이 날 만큼 위험한 곳이 됐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

(194-196쪽)


7. 소설의 결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희망이는 희망을 찾았나요? 희망이와 희망이의 형은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차시 - 읽기 후 활동

1. 형이 희망이를 떠나 있던 시간의 ‘아이언맨 추적기’를 상상하여 작성해 봅시다.



2. 열다섯 살이 된 희망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희망이의 모습을 상상하여 열다섯 희망이의 어느 하루 일기를 써 봅시다.



6~8차시 - (심화 활동) 영화 『중앙역』 감상하기



영화 『중앙역』 포스터 (네이버 영화)

영화 『중앙역』 (1998, 월터 살레스)

영화 배경은 리우 데 자네이루의 중앙역.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 편지를 써주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직 여교사 도라는 어느 날 만나와 그 아들 조수예의 부탁을 받는다.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라가 잠시 역을 나선 순간 만나가 그만 차에 치여 사망한다. 도라는 갑자기 엄마를 잃은 아이를 어찌지 못해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 출처: 씨네21

1. 『중앙역』의 조수예와 『서울 아이』의 희망이의 상황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갖나요?

2. 『중앙역』의 ‘중앙역’과 『서울 아이』의 ‘서울역’은 각각 어떤 풍경을 보여주나요? 그런 풍경 속에 드러나는 현실은 어떤 것인가요?

6~8차시 - (심화 활동) 영화 『중앙역』 감상하기

3. 『중앙역』의 조수애와 『서울 아이』의 희망이가 역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통해 조수애와 희망이는 각각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말해 봅시다.

4. 형과 둘이 남게 된 희망이(『서울 아이』)와 이복형들 곁에 머물게 된 조수애(『중앙역』)의 삶이 앞으로 각각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